

광주 유흥주점발 감염 심각성 커져

광주에서 유흥주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14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광주지역 최대 유흥시설 밀집지역인 상무지구 주 이동경로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유흥주점이라는 특성상 출입자 파악이 쉽지 않고 여성접객원 확진자들이 불특정 다수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커 확진자 수가 급증할 수 있다.

확진자 상당수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생활한 것으로 드러나 방심이 부른 '화(禍)'라는 지적이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35명이고 상무지구 유흥주점 관

확진자 상당수 마스크 착용 않고 생활해

상무지구주 이동경로...출입자 파악 '깜깜'

련 확진자는 14명으로 증가했다.

유흥주점 확진자 중 상당수 여성접객원과 남성 출입자 모두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7번 확진자 20대 여성은 12일부터 15일까지 4일 간 유흥주점 7곳과 식당 2곳을 출입하면서 아예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227번 확진자와 접촉한 여성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221번 여성 확진자와 접촉해 양성 판정을 받은 226번 확진자 40대 남성은 마트와 식당을 출입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225번 확진자 20대 여성도 마스크를 하지 않고 12일부터 15일까지 유흥주점 7곳과 편의점 2곳, PC방 1곳을 출입했다.

224번 확진자 20대 여성은 지난 14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화정동 모 PC방에서 낱을 샌 뒤 오전 6시께 KTX를 타고 서울을 다녀오기도 했다.

222번 확진자 40대 남성은 지난 12일부터 식당 2곳과 월산동 건설현장을 드나들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처럼 확진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은 지난 1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면서 경계심이 느슨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별개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범시민 캠페인까지 벌였지만 허사였다.

무엇보다 광주지역 최대 유흥시설 밀집지역인 상무지구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점에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상무지구는 유흥시설과 함께 식당, 오피스텔, 회사 등 건물이 밀집해 있어 초기 방역에 실패할 경우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태원발 확진이 인천 학원 등 n차 감염은 물론 전국으로 확산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상무지구 유흥주점 감염도 초기 진화가 관건이다.

광주시는 지역 유흥주점 682곳에 대해 지난 16일 오후 7시부터 오는 25일 자정까지 열흘 간 집합금지·시설폐쇄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또 확진자가 다녀간 유흥주점 18곳을 일시 폐쇄 조치했으며,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5개 업소는 고발할 방침이다.

고위험 시설로 지정된 단란주점·감성주점·노래방·콜라텍 업소 1571곳에 대해서도 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인다.

기획재정부



'구멍갈파래' 밀려든 제주 해변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운 날씨를 나타낸 17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해변을 구멍갈파래가 밀려와 가득 덮고 있다. 구멍갈파래는 영양염류 흡수율이 월등히 높고 다른 해조류를 걸핍시키는 등 생태계 파괴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부부싸움 뒤 자택에 불 낸 50대 입건

광주 남부경찰서는 17일 부부싸움을 한 뒤 자택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5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께 광주 남구 주월동 모 아파트단지 내 4층 자택 안방에 불을 낸 혐의다.

불은 경비원이 소화기를 이용해 수 분만에 꺼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부부싸움을 한 아내가 집을 뛰쳐 나가자 화기에 담배꽂이를 안방 바닥에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심코 담배꽂이를 던져 불이 났다. 불이 꺼지지 않아 대피했다"며 실수에 의한 불임을 주장했다.

A씨는 대피 직후 주변을 배회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불을 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재력가 상대 60억대 횡령·사기 사업가 구속

재력가를 상대로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행각 등을 벌인 뒤 4개월간 잠적했던 50대 여성 사업가가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6일 부동산 개발 합작 법인의 공금을 가로채고 벌린 투자금을 갚지 않은 혐의(횡령·사기 등)로 A(54·여)씨에 대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역 유력 건설사 자회사와 합작해 설립한 부동산 개발 법인의 공금 4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력가 등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대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씨와 관련된 고소장 3건을 기준으로 피해 금액은 60억6000여만 원으로 추산된다.

A씨는 대학원 경영자 교육과정 등을 통해 경제계 유력 인사들과 친분을 쌓아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올해 초 피해자들의 고소장 접수로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돌연 잠적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반아 4개월간 추적한 끝에 지난 13일 전북 부안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직후 A씨와 A씨 변호인은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병원에 폭발물 의심 신고...“가짜”

광주의 한 병원 인근에서 폭발물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군 당국이 출동했으나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0분께 광주 북구 한 병원 정신병동 계단이 창틀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물체는 붉은색 원기둥 형태로, 시계와 전선이 묶여있어 '다이너마이트' 폭발을 연상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특공대와 군 폭발물 처리팀은 해당 물체에 노란·폭약이 없고, 단순히 시계와 건전지를 이용해 만든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지난 12일 새벽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남성 운전자가 해당 물체를 놓고 간 점을 파악, 행방을 쫓고 있다.

40대 남성들 말다툼 벌이다 흥기 휘둘러

한집에 함께 살던 40대 남성들이 말다툼을 벌이다 흥기를 휘둘러 1명이 사망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께 안산시 상록구 자택에서 함께 거주 중인 B(42)씨에게 흥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B씨와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은 조사 중이다.

'유흥주점發 3차 유행 막자' 광주 방역당국 총력 대응

확진자 방문 업소 19곳 폐쇄... '방역 위반' 5곳 고발

광주에서 유흥주점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4명 발생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바이러스 추가 확산을 막는데 주력하고 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상무지구 일대 유흥시설 관련 접객원·손님 등 확진자는 14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유흥시설발 감염과 관련해 코

로나19 진단검사는 확진자를 제외하고 979건이 진행됐다. 이 중 611건은 음성으로 판명됐으나, 368건은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또 확진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 308명은 자가격리 조치된 상태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확진자 간 접점이 있어 주요감염원으로 드러난 유흥주점은 2곳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접객원들이 오고

간 유흥·단란주점이 당초 18곳에서 19곳인 것으로 판단, 해당 시설을 폐쇄했다.

이 가운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5개 업소는 고발할 방침이다.

217번 환자가 발생한 지난 12일 이후 유흥주점 관련 확진이 잇따르고, 일부 업소에서 출입 명단 관리·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점이 드러난 만큼 '3차 재유행'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 방역당국은 전날 오후 7시를 기해 오는 25일 자정까지 열흘간 유흥주점 682곳에 대한 집합금지·시설 폐쇄 행정명령을 내렸다.

끝으로 방역당국은 경찰과 합동 점검을 벌여, 293개 업소에 행정명령서를 부착했다. 단란주점 등 감염 위험이 높은 기타 유흥시설에 대한 합동 단속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시 방역당국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추가 동선·접촉자가 있는 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주인호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